

# 임진왜란과 문학적 대응

이동근\*

## 1. 서 론

우리는 불명예스럽게도 동족간의 이념전쟁인 한국전쟁(6·25)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여기서 한국문학은 민족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문학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독일·미국·일본 등의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거침없이 타국을 침략하거나 교전국이 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애국적 측면에서 전쟁문학이 타당성있게 받아들여지고, 다수의 전쟁문학론과 전쟁문학사가 집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동족간의 피비린내나는 이념전쟁을 치렀으면서도, 6·25를 다룬 작품도 영성하고 또한 한국전쟁문학 작품중 대작이 별로 없으며, 수난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전쟁문학론이란 단행본조차 발견하기가 힘든다.

신라초기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992년간 대륙으로부터 110회 일본으로부터 33회 총 143회,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456년간 대륙으로부터 125회 일본으로부터 292회 계 417회, 조선왕조에 이르러서는 518년간 대륙으로부터 192회 일본으로부터 168회 계 360회의 침범을 받았다. 고려조에는 연 평균 1회·조선조에서는 15년 평균 1회의 침략을 받았다.<sup>1)</sup>

이러한 수치스러운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

\* 대구대 교수

1) 윤태림, 역사적 맥락에서 본 현대 한국문화의 방향, 한국정신문화원, 1980, pp.11-12.

필자는 전쟁문학 속에 반영된 우리선조들의 용전의식을<sup>2)</sup> 사실대로 도출하고 전쟁문학사를 반성적 입장에서 기술한다면, 국민들을 좀더 확고부동한 역사의식을 견지한 한국인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16세기말 일본이 자국의 정치적 불안해소와 경제적 이익추구에만 급급 征明假道라는 국제적 무뢰한같은 수법으로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에 대한 선인들의 용전의식이 문학에 반영된 양상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임란전쟁문학」이<sup>3)</sup>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한국전쟁문학사 집필의 첫단초를 끼우는 작업으로 삼고자 한다.

임란전쟁문학에 대한 연구는 설화(강홍수·이명선·임철호·조석래), 가사(권영철·김동욱), 한시(최신호), 시조(강전섭·이은상), 실기(김명식·소재영), 소설(김일렬·민영대·소재영·이동현) 등 각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동근에 와서 자료정리와 종합적 연구가 시도되었고,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sup>3)</sup>에서 기존연구를 종합적으로 소개했으며, 1992년 임진왜란 400주기를 맞이하여 임진왜란과 한국문학이란 제목으로 김태준(해외실기)·소재영(소설)·황폐강(국내실기)·조동일(한시)·정재호(시가)·설성경(설화) 등이 분야별로 연구를 심화시킨 것을 「임진왜란과 한국문학」이란 책으로 발간하여 재점화의 불을 불인 이후, 최근 이채연(포로실기)·장경남(실기)·송철호(인물전) 등에 의해 세부 분야별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sup>4)</sup>

2) 용전의식이란 전쟁에 대응하는 마음가짐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전쟁 당대인의 의식과 전시문학의 참여 입장 그리고 전후 전쟁을 문학에 수용하는 태도 등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3) “임란을 소재로 한 문학”을 뜻하는 임란문학이란 용어는 전쟁문학의 의미망을 총괄하지 못한다고 생각되기에, “임란을 소재·배경·주제로 한 문학중 전쟁문학”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임란전쟁문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4) 초기 연구업적은 참고문헌으로 들리고, 분야별 대표적 연구논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태준, 임진왜란과 국외체험의 실기문학(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소재영, 임진왜란과 소설문학(위의 책)

이들 연구는 실기의 주변장로와의 영향관계, 조선조문학사 내에서 전환 기적 성격, 실기문학의 문학성, 기충민의 원망수용, 시가에 반영된 주제양상 등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바 있는데, 필자는 이들 연구업적을 수용하면서 특히 전시·전후에 임란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인들의 의지와 전쟁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고가 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펴서, 전쟁 문학사적 의의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임란전쟁문학이란 용어의 필요개념인 “임란”·“전쟁”·“문학”的 의미망을 도출하여 임란전쟁문학이란 충분개념을 도출해 본 다음, 이에 포함되는 임란전쟁문학 작품을 개관해 보고, 둘째 평민과 사대부들의 임란옹전의 실상을 어떠하며,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의식을 대표해 주는 작품과 비교분석해 보고, 셋째 일찍이 없었던 전국토를 시산혈하로 만든 범민족적 전쟁체험이 제대로 민족문학으로 그리고 세계문학으로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란전쟁문학이 좀계는 전쟁문학사 내에서 넓게는 한국문학사 내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 2. 임란전쟁문학의 개념과 작품목록

### 2.1. 임란전쟁문학의 개념

임란전쟁문학은 ‘전쟁문학’이라는 문학용어에다 ‘임란’이라는 전쟁의 명칭을 붙인 신조어이기 때문에, 먼저 전쟁문학에 대한 개념규정이 이루어진 다음, 임란이란단어는 어떤 수식적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쟁문학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김석구·박영희·백철·오국근·조병락

황태강, 임진왜란과 실기문학(위의 책)

조동일, 허균 세대의 임진왜란 체험과 한시의 변모(위의 책)

정재호, 임진왜란과 국문시가(위의 책)

설성경, 임진왜란 체험의 설화화 양상(위의 책)

이채연, 임진왜란포로실기문학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3.

이동근, 임란전쟁문학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3.

· 최재서 등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박영희·백철·최재서 등의 논의는 일제하 전시 동원체제하에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전쟁문학에 대한 논의는 출발부터 비극적 수치성을 가진다. 그 이후 한국전쟁(6·25)문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얼마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대부분 1·2차세계대전 후 독일·미국에서 정리된 개념의 적용입에 불과했다. 즉 위와 같은 제가의 논의는 1·2차세계대전, 한국전쟁 등과 관련한 근대전쟁문학에 해당하는 견해임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전쟁의 특수성과 고전문학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전쟁문학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현대·허구적 산문·서구 중심의 견해를 탈피하여, 고전·비허구적 문학·한반도에서 전개되었던 전쟁의 특수성이 고려되는 전쟁문학 개념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전쟁문학은 전쟁 세대들이 적개심과 자아반성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비인간적 전쟁을 거부하며, 전쟁 속에서도 참다운 인간성 추구 등을 표출하기 위하여 발생했듯이 내전·비무력전·가상전 등을 배경으로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전쟁문학에서 가리키는 전쟁은 국제무력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전쟁문학의 허구성도 실제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상력에 제한이 있다고 하겠다.

전쟁문학(Kriegsdichtung)이라든가 세계대전문학(Weltkriegdichtung)이라는 용어는 1차세계대전 도발국인 독일인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2차세계 대전시 그것은 1차대전의 체험을 호전적으로 선동하려는 참여적 전쟁문학과 나치독일에 대한 반전적 리얼리즘의 입장에 선 레지스탕스문학으로 분화되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전쟁문학하면 주로 후자를 지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반전의식이 전쟁문학의 주된 경향이라는 점만을 고려하여, 일부 학자에 의해 전쟁간 전투의지를 고취시켰거나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적대감과 반성감을 환기시킨 고전문학 작품들을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문학의 권외로 방기시켜야 한다는 극단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어전쟁을 치뤄야 했던 한반도에서 전개되었던 전쟁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견해는 한국문학에서 그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문학의 개념을 검토해 보자. 전·실기문학 등을 포함하는 비허

구서사체<sup>5)</sup>에 대한 연구는 유기룡·김태준·소재영·황폐강·조동일·김용숙·이동근·이채연 등에 의해 이루어져 문학의 장르로서 독립성을 인정받고 문학사에 기술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도, 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문학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하지 않아, 문학개론을 주로 짐작하는 현대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국수주의자나 비문학적 연구자로 매도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대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문학개론류에서 비히구서사체를 고려한 확대된 문학의 개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의 정의에 대한 제가의 견해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먼저 문학의 개념에 대한 몇 사람의 견해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① 문학이란 말은 독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배열된 지성적 인간의 사상·감정의 기록을 뜻한다 -S.Brooke

② 문학이란 산문이건 운문이건 간에 반성보다는 상상의 결과요. 교훈이나 실제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될 수 있는 한 많은 국민에게 흥미를 줌을 목적으로 하고, 특수한 지식이 아니라 일반적 지식에 호소하는 저술로 이루어진다. -H.Posnett

③ 문학은 허구로 되어 있다. 허구란 작자가 자신의 머리속에서 상상에 의하여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세계를 말한다. -정영자

④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아름다운 언어와 문자로 표현하여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작품(학원대백과사전)

2-① 문학이란 거대한 말이다. 그것은 문자로 기록되거나 책으로 인쇄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M.Arnold

② 문학이란 가치있는 인간적 체험의 기록이다. -최재서

③ 개인생활·역사·사상 따위를 다룬 글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갖

5) 우리의 고전문학사에서 논픽션 장르에 대한 명칭으로, 수필·잡기문학·기록문학·교술장르 등의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 논픽션은 주로 픽션(현대소설)의 대체개념이라는 점에서, 수필은 사행일기·실기 등을 포함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잡기문학은 실용문을 포함하며 문학용어는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기록문학은 구비문학의 대체개념으로 주로 쓰여진다는 점에서, 교술장르는 실제로 사설을 다룬 너무나 많은 다양한 유형의 작품을 망라한다는 점에서, 각기 한계성을 지닌다. 이에 필자는 고전문학에서 비히구적 기록문학 전반을 총칭하여 비히구서사체라는 용어로 대신하고자 하였다.

추었으면(진실발견·교훈·쾌감) 형상(긴장된 질서)이면서 인식(새로움)  
이니까 문학이다. -조동일

1에서는 쾌락성·허구성·창조적 상상력 등의 핵심단어를, 2에서는 모든 기록물·체험의 기록·개인생활을 다른 글이란 핵심단어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1을 문학의 협의적 개념이라 칭하고 2를 문학의 광의적 개념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허구성을 강조하는 1의 경우나, 모든 기록은 문학이 될 수 있다는 2의 경우 모두는 한국문학사를 기술하는 기본 전제인 문학의 개념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광수가 “문학이란 하오”라는 글에서 1의 입장을 표명한 아래, 대부분의 문학개론서에는 이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결정적인 근거로 “시인의 임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일 즉 개연성 또는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있다. 역사가와 시인의 차이점은…한 사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일을 이야기한다는 점에 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내용을 인용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시인이(창작자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여 시를(작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는 시인임에 다행이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중에도 개연성과 가능성의 법칙에 합치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상 그는 이를 사건의 창작자이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했다.

사실과 허구는 인간에게 교훈과 쾌감을 줄 수 있는 양대영역이며, 우리 선인들은 오히려 전자에 더 문학적 가치를 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고려후기 가전보다는 『삼국사기』 열전에서 우리는 보다 큰 문학적 감동과 삶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문장 자체도 나름대로 문학적 의장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허구서사체의 큰 줄기는 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바, 그 나름대로의 통시적 체계화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학을 창조성·허구성에 입각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려는 견해를 탈피하여 전기·자서전·회고록·일기·서간·기행문·생활기록·수필·실용문서 등의 기록문학을 포함할 수 있도록 문학

### 의 범위를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sup>6)</sup>

예컨대 우리는『안네의 일기』와 엘로이스와 아벨라르가 주고받은 서간문을 실용문으로 보지 않고 문예문으로 보고 있으며, 기번의『로마제국의 흥망사』를 역사로 보지 않고 문학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는 문학작품이라는 것이 꼭 상상력에 의해 재구성된 작품만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비상상적인 문학도 체험세계의 특수성과 작가의 진실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에 따라 상상적 세계에 의해 창조된 작품 이상의 가치를 발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이런 점에서, “문학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폭을 한껏 인정하면서 각 시대마다 문학이라고 의식했던 영역은 그 폭보다 얼마나 축소되었던가를 가늠하는 여유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조동일의 견해는<sup>8)</sup> 주목을 요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가 타당성을 가질 때 임란전쟁문학 연구에서 傳·종군기록·파란기록·피로일기·통신사일기 등의 비허구서사체를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실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학적 구조와 인식과 세계관과 표현방법을 동원하여 교훈성과 쾌락성을 고취시켰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료적 가치와 더불어 문학적 가치를 갖는다고 해야 한다. 즉 인간의 삶의 세계에서 추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험세계의 영역을 소재로 하여 이루어진 예술작품이 바로 문학의 세계라는 점에서 허구성·사실성·교훈성·쾌락성을 총괄하는 문학의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이제까지 논의한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문학이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 또는 허구적인 소재를 가지고, 인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탐구하여, 독자에게 교훈과 쾌락을 주는 유기체적 예술”이라고 조금 폭 넓게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임란전쟁문학이라고 할 때 임란은 어떤 수식적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자. 일단 “임란을 배경으로”, “임란을 소재로”, “임란에 대한 적

6) 유기룡, 기록문학의 영역과 형성, 어문논총11, 경북대 국어국문학회, 1977.

7) 이채연, 전계서, pp.109-110

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제3판), 지식산업사, 1994., p.19

개심·반성·민족적 단결·비인간성을 주제로 한” 등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임란을 다룬 현대작가의 모든 문학도 임란전쟁문학인가란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점에서 작자 및 창작시기면에서 추가적인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쟁문학에서 전쟁은 반드시 실제한 전쟁이어야 한다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전쟁체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전쟁문학의 작자는 전쟁 체험 세대여야 하며, 그 창작도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 당시 또는 그 전쟁을 체험한 세대가 생존해 있는 기간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sup>9)</sup>

이제까지 “임란”·“전쟁”·“문학”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여 임란전쟁문학의 개념을 규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란전쟁문학이란 “임진왜란을 체험한 세대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남긴 자료를 그대로 편집한 후대인에 의하여, 임진왜란의 현장과 상황이 사실적이고 허구적으로 묘사되고, 전장속에서 인간의 체험과 의식을 소재로 하여, 전쟁간 전투의지와 충성심을 앙양하거나 전후 적개감과 반성감의 고취로 민족의 의지를 단결시켰거나 또는 전쟁 속에서 인간의 본질과 전쟁 자체의 비극성을 노출시켜 반전적 휴머니즘을 고취시킨 허구적·비허구적 문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 2.2. 임란전쟁문학 작품목록

앞 절에서 살펴본 임란전쟁문학의 개념에 따라 현존하는 작품중 이에 해당하는 작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의상 시가·산문으로 나누고, 산문은 다시 크게 허구서사체와 비허구서사체로 나누기로 하겠다. 시가에는

9) 고전문학에서 창작시기에 대한 추정은 ①작자·연대미상인 작품이 많다는 점과 ② 대부분의 비허구서사체는 작자의 사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 간행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①의 문제는 작품에 나타나는 시대상·작품의 경향·언어적 고증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그 창작시기를 유추할 수밖에 없고, ②의 문제는 비단 그것이 후대에 간행되었더라도 최초의 내용이 거의 변개없이 편집된다는 점에서 원자료가 어느 시대에 마련되었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설화의 경우 전승되면서 적층되는 면이 있으나 기본적인 전승소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전은 후대인에 의하여 창작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전대상과 동시대의 인물이 남긴 자료의 사실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통신사기록은 피로인이 살고 있는 기간까지 다녀온 기록에 한하여 전쟁문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요·가사·시조·한시 작품이, 허구서사체에는 설화·몽유록·소설 작품이, 비허구서사체에는 전·종군실기·전후실기·피란기록·피로일기·사행기록 등을 포함시켰다.<sup>10)</sup> 여기에는 모든 작품이 총망라되지는 못했지만, 필자가 임란전쟁문학을 위하여 일차로 수집했던 자료였다.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연구·발굴된 작품을 추가하여,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참고자료가 되고자 하였다.

## 임란전쟁문학 작품목록

### I. 시가

#### 1. 민요

전란예측: 四月大月末…(문헌비고)

전란 극복의지: 네놈이 가등청정이 아니냐…(조선구전민요집)

체험과 자학: 아버님 가노이다…(고금가곡)/난리가 났네…(한국민요집  
허동지방)

난민의 고뇌: 옛적의 이러하며…(어우야담 京城)

충절예찬: 진주라 죽석루…(한국민요집 정읍지방)/어와 우리 동무네들  
…(한국민요집 영암지방)

#### 2. 가사

高應陟(1531-1605): 陶山歌

崔 睞(1563-1640): 明月吟/龍蛇吟

朴仁老(1561-1642): 太平詞/船上嘆/嶺南歌

10) 이채연은 전계서에서 임란실기를 종군실기·피란실기·포로실기로 3분하였으며, 장경남은 그의 “임란실기의 문학적 특성고찰”(승실어문 11, 1994)에서 포로실기·종군실기·피란실기·호종실기로 4분하였다. 그러나 임란 체험세대의 실기뿐만 아니라 사정상 사후에 편찬된 원전에 충실한 후손·문화생·후대인의 실기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사행일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종군기록·전후기록·피란기록·피로일기·사행기록으로 5분하여 목록을 제시하였다.

- 강복중(1563-1639): 爲君爲親痛哭歌  
 白受繪(1574-1642): 在日本長歌/對對馬島歌/和安人壽歌  
 安仁壽 : 安仁壽歌  
 金忠善(1571-1642): 慕夏堂述懷歌辭

### 3. 시조

- 李陽元(1533-1592): 노푸나 노픈…  
 高敬命(1533-1592): 靑蛇劍 두려매고…/秦淮예 비미고…  
 李舜臣(1545-1598): 閑山島歌  
 李德一(1561-1622): 漆室遺稿 28수  
 金德齡(1567-1596): 春山曲  
 白受繪(1574-1642): 和京都安仁壽歌 외 1수

### 4. 한시

- 西山大師(1520-1604): 哭征北將/寄邊帥/戰場行/立春  
 金鍊光(1524-1592): 淮陽/築築…  
 高敬命(1533-1592): 枕上悵吟/次湖陰/用嘉平館韻奉呈荷谷東岡/夜坐/見夕  
     峰有感/柳承宣根承審真殿之命到駒林馬也/書要余次舊贈韻  
 尹斗壽(1533-1601): 於義州行在地/平壤城有感  
 金誠一(1538-1593): 薑石樓中三將士…  
 姜沆(1538-1618): 一幅溪藤陳陳…/春雨一番過…/半世經營土一坏…  
     /將軍氣概與天長…  
 李廷璣(1541-1600): 哀東萊府使宋象賢/守城夜吟/遙贈陸公則/醉吟/聞天兵  
     破賦/喜而有賦/復用前韻/題梅娘詩帖/題咸悅村庄/舟中  
     卽事/哀招討使高敬命/哀倡義使金千鑑/哀義兵將趙憲/  
     哀忠清兵使黃進/哀忠勇將金德齡/哀統制使李舜臣/哀慶  
     尚右使崔慶會  
 柳成龍(1542-1607): 孝陵道中有感/宿清風寒碧樓/贈別李督如松  
 尹安性(1542-1615): 使名回答向何之…  
 趙憲(1544-1592): 東土號號百萬師…, 師渡荊江有懷高而順

維 靜(1544-1610): 丹心故國月…/聞龍旌西指痛哭而作/洛下臥病上西厓  
 相公/次西厓相公韻題坦後軸/宿福州城樓/宿首陽城/舟  
 中夜坐/送俞正郎除江界半刺/謹奉洛中諸大宰乞渡海詩/  
 釜山大海/己亥秋奉別邊注書/過震川/在南原營/奉全羅  
 防禦使元長浦/壬辰十月領義僧度祥原/別中使/奉李水使  
 /龍泉館夜聽秋蟲/踰竹嶺/馬島客館寫懷/在馬島客館左  
 車第二牙無故酸痛伏枕呻吟

李舜臣(1545-1595): 陣中吟/閑山島夜吟/無題六韻

문덕교(1551-1611): 感吟/思鄉吟 13수

宋象賢(1551-1592): 孤城月暉…

宣 祖(1552-1608): 國事蒼黃日…

李好閔(1553-1635): 干戈誰着老來衣…

鄭 運(1554-1592): 雨晴雲捲暮城秋…

柳夢寅(1559-1623): 臨津/海柱衛見國人孫三孫金太仁孝成龍來訪

鄭文孚(1565-1624): 玉田途中/次富寧客舍韻/次歐陽公廣陵寺韻/在北道巡  
 行時作/在北道避亂時作

魯 認(1566-1622): 昨夢瑤墀拜至尊…

權 韶(1569-1612): 賊退後入京/海村雜興/醉時歌/切切何切切

許 琮(1569-1618): 勅建顯靈關王廟碑/聞南原陷楊元走還/故全羅道兵馬節  
 度使贈兵曹判書李公誅竝引/老客婦怨/聞本國水兵統制  
 元均及水使李億麒崔湖淳死/到山海關聞楊經理直到京城  
 賊到稷山敗回

李德馨(1561-1613): 紛紛蛙坎自爲多…/勝敗分明一局棋…

李安訥(1571-1637): 東萊四月十五日

鄭希得(1575-1640): 聞賊兵長驅作避亂行/雨夜獨坐/西望痛哭/子平等得小  
 艇謨置恨無棹夫/故國豈不死…/潛揮雙淚畏人知…

張 維(1587-1638): 恨入秋陰鬱不開…

洪處亮(1607-1683): 忠烈華夷伏…

申 炳(1613-1653): 國事蒼黃日…/國勢若綴旒…/烈烈倡義公…/邦家多  
 難海波驚…/鳥道于雲以劍門…/巡察英名動海區…/

一自碧蹄衄……/鯨鯢出沒海之央……/威名久懾犬羊群……

南龍翼(1628-1692): 聞笛睡陽詠……

吳天賛 : 閑山一島國南門……

## II. 허구서사체

### 1. 설화

- 1) 임란의 예고: 血巖(오백년기담)/太宗雨(연려실기술)/建元陵異變(연려 실기술)/料倭寇麻衣明見(청구야담)/南師古(연려실기술)/渾부처설화
- 2) 군주에 대한 충성심: 千度米(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244화)/愛男의 지혜(계서야담 이해고조)/14의사묘(한국지명총람 경북편)/郭趙 일가의 절의(어우야담)/윤섬의 충성심과 우애(연려실기술)
- 3) 주인에 대한 충성심: 彈琴臺忠僕收屍(청구야담)/이수광과 豊의 이야기(지봉유설)
- 4) 妓女의 애국심: 晉陽城義妓捨生(청구야담)/金應瑞와 桂月香(임진록)
- 5) 순절담: 정기룡 부인의 순절(매현실기 사적조)
- 6) 여자의 지혜: 김천일 부인의 지혜(계서야담)
- 7) 임란 극복 의지: 송상현의 現夢詩(난중잡록)/행주산성의 승전봉(한국 민간전설집)/이항복의 공사의식(연려실기술)
- 8) 역사적 인물담: 김덕령/곽재우/이순신/곽재우/김천일/신 립/이율곡/유 성룡/정기룡/사명당(이상 임진록)
- 9) 異人·자연의 음조: 豐현동 은행나무(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244)/사명당의 도술(사명대사집)/사명당 지팡이(이명선, 임진록)/釜山峙의 石將軍(菊圃墳錄)/赤兔神將掃賊兵/茅庵喝僧現神鑑(이상 동아휘집)/拗倭僧柳居士明識(청구야담)
- 10) 파란만장담: 紅桃, 魯認, 柳汝宏(이상 어우야담)/歷三國一家團聚(동아 휘집2)
- 11) 풍수도참: 避禍亂賢婦異識/覘天里深峽達異人/座草堂三老壤里/李東臯爲

廉擇佳郎／南師古東國十勝地(이상 청구야담)

12) 주체의식: 老翁騎牛犯提督(청구야담)

## 2. 몽유록

尹繼善(1577-1604): 達川夢遊錄

皮生冥夢錄

黃允中(1577-1648): 犬川夢遊錄

신 타(1581- ? ): 龍門夢遊錄

## 3. 소설

趙緯韓(1558-1649): 崔陟傳

南允傳

李翰林傳

權驛: 周生傳, 章敬天傳

李長白傳

## III. 비허구서사체

### 1. 傳

李山海(1539-1609): 金原城傳

李 塏(1560-1635): 后溪傳

李暉光(1563-1628): 趙完璧傳

宋時烈(1607-1689): 贈兵曹參判張潤傳/義士金聲遠傳

許 穆(1595-1682): 東萊嫗

朴世采(1631-1695): 沈君鐸小傳/都巡邊使申公傳

任相元(1638-1697): 東萊梁敷河傳

朴泰茂(1677-1756): 姜氏忠孝傳

李 漢(1681-1763): 勿巖金先生傳/楓巖文先生小傳/壺峰宋判書小傳

蔡濟恭(1720-1799): 白義士傳/辛起金傳/愛男傳

申光洙(1711-1775): 劍僧傳

洪良浩(1724-1802): 枫林申義士誕年傳/義士守門將文紀房傳

金養根(1737-1799): 安僉知傳/權沃川傳

李德懋(1741-1793): 紅衣將軍傳

丁若鏞(1762-1836): 尹氏三世忠孝傳

## 2. 실기

### 1) 종군기록

鄭 琢(1526-1605): 龍蛇日記

丁希孟(1536-1596): 善養亭壬亂日記

李廷純(1541-1600): 西征日錄

柳成龍(1542-1607): 懲懲錄

尹國馨(1543-1611): 聞韶漫錄

權斗文(1543-1617): 虎口錄

李 魯(1544-1598): 龍蛇日記

李舜臣(1545-1598): 亂中日記

金忠善(1552-1608): 蓦夏堂實記

趙 靖(1555-1636): 壬辰倭亂日記

鄭慶雲(1556- ? ): 孤臺日錄

金 涌(1557-1620): 扈從日記

朴東亮(1559-1635): 寄齋史草

趙慶男(1570-1641): 亂中雜錄

安邦俊(1573-1654): 隱峰野史別錄

申 炏(1613-1653): 再造藩邦志

宋啓弼 : 西湖忠烈錄

### 龍灣見聞錄

### 少爲浦倅義錄

### 唐山義烈錄

閔順之 : 壬辰錄

丁致亨 외 : 壬辰倭亂守城錄

### 壬辰筆錄

李擢英 : 征蠻錄

## 2) 전후기록

郭再祐(1552-1617): 忘憂堂全書(龍蛇別錄)

孫仁甲( ? -1592): 後知堂實記

李雲龍(1562-1610): 息城君實記

金德齡(1567-1596): 金忠壯公遺事

申維翰(1681-?) 編: 肅忠紓難錄

洪良浩(1724-1802): 湖南節義錄

蔡休徵 : 梅軒實記

丹室居士 : 王辰錄

## 3) 피난기록

吳希文(1539-1613): 瑣尾錄

鄭榮邦(1577-1650): 壬辰遭變事蹟

柳 託(1582-1635): 임진녹

## 4) 피로일기

魯 認(1566-1622): 錦溪日記

姜 汎(1567-1618): 看羊錄

鄭慶得(1569-?): 湖山公萬死錄

鄭希得(1575-1640): 月峰海上錄

鄭好仁(1579-?): 丁酉避難記

## 5) 사행기록

權 僵(1553-1618): 燕行錄

吳允謙(1559-1636): 東槎上日錄

黃 慎(1560-1617): 東槎錄

慶 邊(1562-1620): 海槎錄

李景稷(1577-1640): 扶桑錄

姜弘重(1577-1642): 東槎錄

### 3. 임란옹전의 실상과 작품에 나타난 상하계층의식

임란의 현장과 선인들의 옹전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역사가에 의하여 쓰여진 객관적 역사서를 참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서는 국란극복과 주체적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전란의 현장과 구체적 옹전의 실상을 살펴보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임란을 체험한 개개인이 쓴 실기를 통하여 평민층과 사대부층이 어떻게 임란을 극복하려 했는가를<sup>11)</sup> 통시적으로 재구해 보고, 이를 양계층의 의식을 대표하는 작품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3.1. 평민옹전의 실상과 개체지향

임란에 대한 대비는 1·2년 전부터 진행되었다. 그러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이순신을 가리포첨사에서 전라좌수사로 발탁하는 인재천거가 있었으며, 변방을 잘 아는 재신을 골라 하삼도를 순찰케 하였다. “이 때 오랫 동안 태평이 계속되었으므로 서울과 지방이 편안한 것만 알고 부역을 꺼려 원성이 가득했다.”(징비록) 또한 “오래지 않아 세상이 바뀔 터이니 생전에 취하고 배부름이 제일이다.”(기재잡기)라는 말을 떠뜨리며 백성들은 도성 안팎 산에 모여 해가 지도록 술과 풍악을 즐겼다.

왜적은 침구한지 15일만에 경도에 입성했는데, 임금이 한성을 벗어나자 궁궐은 왜구의 입성 전에 불탔으며, 봉진중 어가의 일행은 연도 백성들의 육설과 투석질로 행군이 곤란했고, 평양군민은 곤장으로 마상의 궁비를 격추시키고 호조판서를 구타하기까지 하였다.(징비록)

11) 황태강도 그의 “임진왜란과 실기문학”에서 징비록·난중일기·임진왜란일기·쇄미록·임진조변사적에 나타난 현실비판·항왜국면·왜군과 명군의 행동·현실반영 등의 면을 밝힌 바 있는데, 필자는 징비록·기재잡기·연려실기술·난중잡록·동사상일록·일월록 등에 나타난 평민과 사대부의 임란옹전의 실상을 임란경과에 따라 축시적으로 재구해 보았다.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왜군이 백성을 회유하며久留의 대책을 세우자, 무지한 백성은 물욕에 마음이 끌려 뛰어다니며 정탐행위를 하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더군다나 적중에 있는 어린이들까지 동원되어 혹은 서울말로 혹은 사투리로 (진주)성 밖을 돌아다니며 외치기를 “서울이 함락되고 8도가 무너졌는데 篠만한 작은 성이 어찌 견디겠느냐? 오늘 저녁 介山 아버지가 오면 너희 세 장수의 목은 마땅히 깃대 위에 걸릴 것이다.” 하였다.(연려실기술)

또한 적과의 접전으로 동족의 시체가 산하에 널리는데도 한편으로는 (서울)·부산·동래에 유둔한 적이 우리 백성들과 더불어 서울·함안에서 시장을 개설하고, 적들은 소와 말을 우리 나라 사람은 虎皮와 매를 가지고 교환하였다.(난중잡록)

더욱이 가슴 아픈 일은 전 백성이 일치단결하여 대적해도 어려운 관국에, 왕자를 사로잡아 적에게 넘겨주고 벼슬을 얻는 국경인의 반역이 있었으며, 선조 27년에는 홍산에서 송진유가, 남원에서 김희가, 영남에서 임결년이, 그리고 29년에는 홍산에서 이몽학이 각기 내란을 일으켰다.(연려실기술)

선조 31년 조명연합군이 울산성을 공략했으나 실패하자, 명군은 성중에 있는 수천명의 조선인이 일본군에게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항의했으며, 실제로 조선제 포탄에 맞아 죽은 자도 많았다. 한편 우리 나라 여자들은 명나라 병사에게 시집가서 호남·영남에 살림을 차리고 그들이 철수하자 모두 따라갔으나 산해관에서 입국이 불허되어 방자들과 짹을 맞추어 살았다.(난중잡록)

또한 전란이 끝나고 다시 조·일간 외교관계가 이루어질 때 통신사절들은 일본관백에게 임란포로의 귀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때 대부분 사대부계층은 자진하여 귀국을 서두른 반면, 평민포로들은 일본에 정착하려는 자가 많아, 많은 평민들은 은자를 받고도 발선할 때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동사상일록)

사회가 무정부상태에 놓이자 평소 유교윤리의 교화를 받으며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살아 온 평민들은 당시의 윤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이러한 평민의 전시행동은 亂前 기근·재해·만역·학정에

대한 반감과 난시 연명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국가지배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난중 평민들의 동태를 보고서도, 우리는 과연 당시 무기력한 면을 모두 지배계층의 실책으로 돌리고, 평민들의 입장은 철저히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며, 임란전쟁문학에서 민중의식만 도출하려는 입장은 정당한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당시 평민들은 역사의 자발적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피해의식과 불만감만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평민들의 피해보상 욕구는 비판적 사대부들의 주체적이고 현실개선적 사고와 결합했을 때, 역사적 추진력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했다고 보인다.

그러면 이어서 평민적 전쟁문학<sup>12)</sup>에는 어떠한 문학의식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자.

평민일화에는 동진중인 왕에게 쌀을 진상한 농부 이야기(천도미)·渡江의 어려움과 御膳의 부족을 해결한 천민이야기(애남의 지혜)·탄금대에서 주인의 시체를 찾아 선영으로 옮긴 노복이야기(탄금대충복수시)·논개가 적장을 껴안고 남강에 투신한 이야기(진양성의기사생) 등이 있다. 임란 이후, 여러 가지 평민일화가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들을 문헌에 남긴 사대부가 그들의 윤리관에만 맞는 일화만 선별 채록하였기에, 유교윤리를 실천한 인물의 일화만이 남아 전하다고 하겠다.

민요에는 4월달에 경기감사가 비옷을 준비하고 임금을 찾아간다는 전란 예측의 노래·어떠한 왜장이라도 안동에 들어오면 살아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안동민의 노래·내일을 기다리지 마라는 난리가·논개 절의를 예찬한 노래·이순신을 예찬하는 강강수월래노래 등이 있다. 민요는 오랜 동안 구전되다 일화보다는 훨씬 뒤에 문헌에 정착된 까닭에 여기에는 임란에 대한 얼마간 평민들의 의식이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운이 일찍

12) 평민적 전쟁문학이란 평민계층(평민·천민)이 작품의 주인공 또는 작자가 되어 전쟁간 그들이 대처하고 경험했으며 느꼈던 것을 그들의 국가관·생활관·신앙관 등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기술한 문학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평민일화·민요·시조가 있다.

감들았으나 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실정에 대한 비판·징병당해 가는 젊은 이의 체념(내년의 이시절 오나도 기드리지 마루소서)·조총 앞에 무력감을 느끼던 병사들의 자학(동네울산 비몰었네/그기 비 아니다/조선군사 눈물이다/눈물을 밥을 삼고/한검을 벼개삼고)·난리를 맞아 무엇에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막연한 난민의 고뇌(수심이 실되어/구비구비 맥쳐 잊어/아무리 풀으려하되/ 끝간티를 몰래라) 등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시조에는 전시 평민의 태도(고경명의 *秦淮 예*<sup>13)</sup>)와 전후 평민의 생활상(이덕일의 뵈나하)을 다룬 작품이 있는데, 앞 작품에는 전시 평민의 무정부적 생활태도가 잘 나타나 있고, 뒤의 작품에는 전후 노역과 세금에 혹사당하는 평민들의 생활상이 비판적 사대부의 시각을 통하여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보다시피 평민의 의식은 평민의 입을 통해 구비전승된 민요와 비판적 사대부의 시각을 통하여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전란을 당하여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억매여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볼 때, 필자는 이러한 평민의식을 한마디로 개체지향적 의식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 3.2. 사대부 응전의 실상과 충절의식

개국후 200년간은 주변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승평의 기간이었기에, 군대의 증강을 한낱 체제유지의 불안요인으로만 생각했고, 고질화된 문무차별은 주요 무관직을 문관이 독점하고, 무관이 문관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형적인 군사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난전 도성안 선비들이 천백으로 떠를 지어, 미치광이나 괴물처럼 노래하고 춤추며 웃다가 올다 하여 부끄러움을 모르고 도깨비나 무당의 흉내를 내며 다니니 흥하고 놀랍기 짹이 없었다.(일월록)

30년만에 찾아 온 일본 통신사 행동에도 침략의지가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조총을 바치는가 하면, 현소는 사행간 왜관벽에다 “*蟬噪忘蟠捕*

13) 2. 2.의 작품개관에서 이미 작품명을 제시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작품제목 또는 작품명이 없는 경우는 起句 서두에서 대체로 두·세음절을 인용하여 그 작품을 대신하고자 한다.

魚游喜鸞眼 此地知何地 他年重開筵”이란 시를 써 붙였고, 남쪽에 거주하던 왜관의 왜인들은 모두 귀국하였다.(일월록)

왜정 탐지를 위해 떠났던 통신사가 귀국시 지참한 왜의 답서에 “대명국에 한번 뛰어들어가 우리의 풍속을 중국 400여주에 시행해 보고”(연려실기술)라는 구절이 있었음에도 당시 득세했던 남인의 일원이었던 부사 김성일의 허위보고가 정론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와중에 황윤길의 군관 황진같은 자는 재산을 털어 말을 사서 밤낮으로 말달리기와 활쏘기를 익히면서 “큰 난리가 장차 일어날 것이니 대장부가 나라에 몸을 허락했다가 그대로 죽을 수는 없다.”(일월록)고 말하기도 하였다.

군대는 적과 대적할 만한 전력이 되지 않는다고 미리 겁먹고 강요받은 전쟁을 회피할 수는 없다. 항복은 통수권자에 의하여 결정될 뿐, 무인은 최후의 일각까지 자신의 소임을 다해 싸워야 한다. 개전 초기 800여척의 적선이 몰려온다고 하여 경상좌수사 박홍은 육지로 도망쳤으며, 경상우수사 원균은 전선을 파괴하고 장비를 수장시킨 후 전장을 이탈했다.

병사·수사들이 갈림길에서 서성이고, 고을을 맡은 수령들이 산간으로 도망해 숨을 때, 이를 보다 못한 지방 유생과 명문거족들은 향리에서 그들의 권위를 기반으로 곳곳에서 기의했으니 첫 기병자가 임란 발발 14일만인 4월 27일 의령에서 일어난 괴재우였다.(기재잡기)

탄금대 배수진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장계를 접한 조정은 실현성도 없는 한성수호를 도민에게 거짓 약속하고 서도로 봉진의 길에 오른다. 그러나 호종신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어찬을 뺏기고, 전쟁의 피화가 아직도 이르지 않은 북삼도의 관리들도 어가의 행렬에 수수방관적 태도로 일관하였다.(기재잡기)

전란이 장기화되자 일부 사대부와 유생들은 코 앞의 욕심에 어두워 조선조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혼란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즉 東福의 생원 金遇秋는 “칼을 침고 동해를 건너니/장군은 왕의 보필이요/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친하가 모두 돌아올 것이요.”란 시를 왜장에게 전했으며 (난중잡록), 종성부사 李見龍은 “나를 위무해주면 임금이며, 나를 학대하면 원수이니, 누구를 부린들 신하가 아니며,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랴.”라

는 내용의 항복 표문을 적장에게 올렸다.”(난중잡록)

이보다 한술 더떠, 참수급제가 있는 뒤로는 짚주린 백성이 더욱 목숨을 잃었는데, 목을 베어 머리를 각아서 왜놈의 목이라고 속여서 바치거나, 진짜 왜놈의 목을 바치는 자도 남에게 사서 바치는 자가 많았다.(난중잡록)

유정이 강화의 임무를 수행하고 포로를 대동하고 돌아왔을 때 “선장들은 일본에서 데려온 남자와 여자들을 맡게 되자, 서로 뒤질세라 앞을 다투어 얹어매기가 약탈하고 포로하는 것보다 심하고, 혹 연고가 없으면 자기 종이라 칭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보이면 그 남편을 뮤어 바다에 던지고 멀대로 자기 소유로 만드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난중잡록)

이와 같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하에서도 그래도 평소 부르짖던 진충보국과 사군이충을 몸소 실천한 인물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명원군과 의병의 배후교란에 힘입어 결국 왜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 대표적 인물로 바다의 이순신·육지의 정기룡·신출귀몰한 의병장 곽재우 등을 들 수 있다.

위에서 보다시피 군사력이 수반되지 않은 외세의존적 사대주의·문무차별·상무정신의 결여·사색당파·반상의 차별·관념적 유교이념 등의 한계를 지닌 조선왕조는 전란시 국가통제로부터 평민계층과 많은 사대부층의 이탈을 가져와, 거국적 웅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일부 사대부의 외로운 항쟁으로 대처해야 했으며, 명목상으로는 승리한 전쟁이지만 그마저도 실은 의병과 명군의 승리로 둘려야 하는 부끄러운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어서 사대부적 전쟁문학<sup>14)</sup>에는 어떠한 문학의식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자.

사대부일화에는 朴慶傳 門中 14명의 의절을 다룬 14의사묘·황석산성 수호와 관련하여 죽음으로 충효절을 실천한 꽈준일가의 절의·진주성 함

14) 사대부적 전쟁문학이란 사대부계층(왕족·사대부·양반·종인)이 주인공 및 작자가 되어 전쟁간 또는 전후 그들이 대처하고 경험했으며 느꼈던 것을 그들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형상화한 문학으로, 여기에는 사대부 일화·한시·시조·가사·비히구서·사체(포로일기·기행문·실기) 등이 있다.

락시 모녀가 남강에 투신한 정기룡 부인의 순절·평소 물자를 비축하여 임란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김천일 부인의 지혜·죽은 송상현이 꿈에 나타나 그의 아들에게 국난극복에 진력하라고 전한 임란극복의 의지 등이 있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한마디로 충·효·절의, 여성들의 활약, 임란극복의 의지와 지혜 등으로 집약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사대부 응전의 실상을 참고해 보면 다양한 사대부 일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중에서 사대부적 가치관에 부합되는 것만 채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시에는 조정의 무능(선조의 國事·윤두수의 於義·이호민의 干戈), 우국충정(송상현의 孤城<sup>15)</sup>·이순신의 無題), 전화와 적개심(윤두수의 平讓·유성룡의 孝陵), 회한 및 향수(정운의 雨晴·이순신의 閑山·유성룡의 宿清·휴정의 戰場行), 호국심(휴정의 立春·유정의 馬島), 피로인의 충절(강항의 一幅·노인의 昨夢), 추도(조현의 東土·휴정의 哭征)·현실비판(작자미상의 王儉·이대원의 日暮) 등을 다룬 작품이 있는데 전략극복의 의지·회한·현실비판 등으로 그 내용을 집약할 수 있다. 특히 동래성을 사수하면서 남긴 송상현의 絶命詩와 포로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복수심을 불태웠던 노인의 志操詩는 사대부 한시의 표상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시조에는 丹忠과 忠憤(이양원의 노푸나·김덕령의 춘산의 ·이덕일의 憶哭關), 전란 속에서의 고뇌(이순신의 한산섬), 호연지기(青蛇劍), 피로의 향수와 단총(백수희의 어와와 和京) 등을 다룬 작품이 있는데, 뜻 밖에 작품수가 적다. 동 시기 다른 내용을 다룬 시조가 풍성하다고 볼 때, 여기서 우리는 사대부들의 유교윤리 실천의 전면목을 엿볼 수 있다.

가사에는 관념적 또는 실천적 충성심(최현의 명월음·용사음), 피로인의

15) 1592년 5월 14일 왜적이 내습하자 초전에 경상좌수사 박홍·병사 이라이 전장을 이탈했으나, 송상현은 초연히 동래성문을 굳게 닫고 적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성이 실함의 위기에 빠지자, 그는 평소 가지고 있던 부채에 "달무리 진외로운 성/대진을 구할 길 없네/군신의 의리는 지켰지만 부모의 은혜는 어찌할까나 (孤城月筆 大鎮不救 君臣義重 父子恩輕)"란 절명시를 적어 노복으로 하여금 부친에게 전할 것을 당부하고는, 관복을 입고 謙樓에 올라 망궐례하고 단좌하여 적의 칼을 받았다. 이러한 송상현의 최후는 사대부 절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깊닭에 그는 사후에도 아들의 꿈에 나타나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한시를 전했다는 일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충정<sup>16)</sup>과 향수(백수회의 재일본·안인수의 안인추가), 전후 태평의 촉원(박인로의 태평사·선상단) 등을 다룬 작품이 있다. 여기에서도 임란에 참전한 문무관과 피로인의 단심·현실비판의식(니묘흔 수령들/너흐느니 백성이요/톱묘흔 변장들/허위느니 군사로다; 용사음)·맹목적 평화의지(화산이 어디오/이말을 보내고져//천산이 어디요/이활을 노피거자//이제야 흐울 일이/충효일사 뿐이로다//營中에 일이 업셔/긴줌드려 누워시니; 태평사) 등이 잘 나타나 있지만, 이들이 창작되던 당시 자연예찬·온일·난후 혼정諷諫·안빈낙도 등을 표출한 가사들이 왕성히 창작되었다고 볼 때, 시조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대한 사대부들의 안이한 대옹·수용자세를 엿볼 수 있다.

비허구서사체종 일기에는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정호인·정회득·노인·강항의 포로일기가 있고, 기행문에는 원병 특사로 명나라를 다녀온 권협의 「연행록」과 임란전후 일본을 다녀온 황신·경섬·오윤겸·이경직의 통신사일기가 있으며, 실기는 매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중 유기룡의 「징비록」·정기룡 사적기인 「매현실기」·「임진록」의 모태가 된 안방준의 「은봉야사별록」 등이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남자들의 생존은 가문을 존속시키기 위함이고, 사대부들은 왜인에게 傭書를 하면서 비굴하게 생활한 점(정유록); 일부 선비들은 오양간 일과 꼴사역을 하는데 家婢의 수중을 받아가며 바둑과 시화로 소일한 일(월봉해상록), 포로생활중 적정을 고국에 보고하고 피로인에게 적개심을 고취시켰으며 임란극복의 방책을 건의한 일(간양록); 일본에 억류되든지 아니면 처형을 당하더라도 국왕의 하교에 위배되는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사신으로의 태도(일본왕환기); 경섬은 포로송환의 임무를

16) 백수회는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魁齊와 蘇武의 지조를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포로 생활중 자신의 신념이 회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팔뚝에 '寧爲李氏鬼不作犬羊臣'이란 문신을 새기고 생활하였다. 다음의 「재일본장가」에는 이러한 피로지에서의 절조가 잘 나타나 있다.

青衣를 매앗고 膚體에 절호며 魁齊의 采薇와 蘇武의 漢節과  
天祥의 為國丹心을 낫디아닌 이내모옹/朝朝 蓦墓의 西山을 慘望하니  
一寸 肝腸이 빙눈듯 낫눈듯/乾坤을 府仰하고 故事を 思量하니  
父母恩德과 兄弟友愛를 못다갑흔 殘編로다.

(백수회, 재일본장가)

띠고 일본에 건너가 왜인의 물량공세와 환심책에 호호작작하고 연일 연락에만 빠져 있다 돌아 온 반면(해사록), 오윤겸은 필요 이상의 연회는 칭병 사절하고 한 명이라도 더 귀국시키려고 노력한 점(동사상일록); 지난 일을 경계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삼가하기 위하여 철저히 교훈적 입장에서 기술된 점(징비록); 뜻밖에 육지에서 유인작전·석차공격·화공·복병술·적중돌파·심리전 등 비정규전을 감행하여 왜적에게 치명적 손상을 입힌 숨겨진 육지의 이순신이 있다는 점(매현실기); 그리고 임란의 충격에도 대부분의 사대부층은 반성은 커녕 과거에로의 복귀에만 연연했지만, 한편으로 개혁의지·민족의식·민종의식을 가지고 새역사를 창조하려는 재야 비판적 사대부의 출현 등등의 사대부층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은봉야사별록)

위에서와 같이 일부 체결적 면모를 보이는 사대부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많은 사대부가 역경 속에서도 평소 사군이충의 유교윤리를 실천해 주었기 때문에, 체제내 많은 모순이 있었으면서도 500여년이란 긴 세월동안 조선조는 유지될 수 있었으며, 또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층은 민중이며 세계의 중심은 우리라는 주체의식을 가진 일부 비판적 사대부의 등장이 있었기에 18세기 이후 조선조는 다소나마 봉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대부의 표창해야 할 의식을 한마디로 충절의식이라고 칭하였다.

#### 4.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임진왜란에 대한 전시·전후 당대인의 의식은 지배층 비판·적개심 고취·충의실천·자기반성·전쟁에 대한 허무감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전한 극복의지가 주로 내재된 참여문학인 민족적 전쟁문학과 전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전문학인 세계적 전쟁문학으로 나누어, 그 문학적 형상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4.1. 민족지향의 전쟁문학과 현실인식의 환상화

민족지향의 전쟁문학이란 계층의식을 벗어나 민족공동의 사유와 세계관을 표출하고 있거나, 전쟁체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민족문학 수준의 작품화가 이루어졌거나, 일부 선각적 사대부의 비판의식이 민중의 욕망과 결부되어 임란을 주체적으로 비판하고 민족의 미래지향성을 제시한 문학을 말한다. 이는 주로 전후에 창작되었는데, 구체적 작품으로는 민족설화·허균의 한시 「老客婦怨」·이순신의 한시 「閑山島夜吟」, 종군실기 「정만록」 그리고 비판적 사대부에 의해 창작된 「達川夢遊錄」·「皮生冥夢錄」 등을 들 수 있다.

미중유의 전쟁을 겪고 난 후 형성된 설화는 한 계층의 의식만 반영하기보다는 민족 일반의 사유를 대변했다고 생각된다. 즉 현재 전하는 임란 체험기록의 대부분은 비판적 사대부에<sup>17)</sup> 의하여 쓰여졌다고 볼 때, 여기에는 문자화된 사대부계층의 의식과 평민의식이 함께 융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들의 내용은 임란의 예고·자연의 음우·관우신앙·불교의 호국성·풍수도참 사상·神鑑과 인물숭배·주체의식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수난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인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적 사고·정신적 승리를 위한 한 방편으로 범국가적으로 폭넓게 수용될 수 있었던 관우신앙·현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을 요구하는 불교의 현세적 성격·전란극복보다는 먼저 일신의 피신에 급급했던 도피적 사고·중국에 대한 사대적 관념의 반성 등의 민족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임란설화에 나타나는 당대인의 의식성향을 집약해 보면 이기적·운명적·피동적·도피적·요행적·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분적이나마 주체성의 쪽이 엿보이기도 하였다.

허균의 「노객부원」<sup>18)</sup>은 피해의 현장을 관념적으로 처리한 다른 작품과

17) 황폐강은 실기의 작자층으로 집권층·참전 관료층·참전 민간인(재야 사류 및 의병)·戰災民(재야사류)·평민층·附倭 叛徒 賊徒 등을 살피하고 나서, 그러나 실제로 평민층·부외·적도·반도의 실기는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였다.(전개서, pp.28-29)

18) 전란의 비참성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과 비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는 달리, 한 노파를 화자로 등장시켜 그녀의 난중 체험과 현재의 입장은 구체적이고 사실감 있게 구술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

남편은 병든 시어머니를 업고, 아내는 어린아이를 업고 난을 피해 산곡간으로 전전궁궁하는 피란생활 도중, 남편과 시어머니는 적에게 도륙을 당하여 각각의 시체를 구분할 수 없게 되고 그것마저 숭늉이와 솔개의 밥이 되었으며, 이 때 아내는 엉겁결에 아이를 버리고 도망하여 자기의 목숨만 부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노파는 어머니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관계로 다행히 적지에서 생활한 아들이 성가하여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몇몇이 찾아가지 못하고, 단지 아버지의 무덤을 아르켜주어 제사라도 지내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노파의 한탄은, 전쟁이 인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비정한 상황이요, 임진왜란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허균문학의 사실성을 만나게 된다. 모든 것을 관념으로 파악하려는 조선사회에서 현실을 있는대로 파악하려는 이러한 비판적 사대부의 출현은<sup>19)</sup> 점차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층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부분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어둠타고 뒤를 밟아 노한 칼로 내리쳐 목을 베니  
 모자가 함께 원혈을 훌렸다오. /나는 어린애와 숲 속에 숨었더니/  
 애가 울어서 적에게 들켜 혼자 도망쳤다오. /단지 한 몸 호구에서 벗어나니/  
 창황하여 차마 소리도 못지르고/다음날 와 보니 두 주검 있었다오.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체를 분별할 수 없었고/솔개는 창자를 쪼고 개들은 물어뜯어/  
 숲 속에서 누구를 불러 시체를 묻으리오/간신히 판석자의 구덩이에/  
 손으로 남은 뼈를 주워 묻었다오. /... (중략).../  
 요사이 서울에서 들으니/고이는 적중에서 요청히도 살아나와.  
 궁중에 들어가 종이 되어/장농에 비단이며 곳집도 넘치고/  
 아내 엎고 짐지어 생계도 넉넉한데/어미가 판 고을에 있거나 생각할 리 없고/  
 아이가 자랐어도 힘되기 어려우니/생각하면 밤중마다 가슴이 막힌다오. (후략)  
 (闇暗躡從如相猜 怒刀擣脫腹四裂 子母并命流冤血 我望幼兒伏林樹  
 兒啼號覺駆將去 只余一身脫虎口 蒼黃不敢高聲語 明朝來視二骸遺  
 不辨姑屍與郎屍 鳥雀啄腸狗憐骼 墓裡欲掩還伊誰 穿勤掘得三尺深  
 手拾殘骨閉幽坎 ... 중략... 近者京城消息傳 孤兒號中幸生還  
 投入宮家作蒼頭 脫帛在笥同食廩 髮婦作舍生計足 不忿阿娘客他州  
 生兒成長不得力 念之中宵淚橫曉)

(許筠, 老客婦怨)

19) 이 점에 대하여 조동일은 그의 “허균 세대 임진왜란 체험과 한시의 변모”에서 허균은 중세의 규범에 메이지 않을 수 없던 상충 문인이 민족과 민중의 고통을 절실히

고 할 수 있다.

이탁영의 「정만록」은 전쟁중에서 가족에 대한 근심과 그리움이 매우 사실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부분이 많아, 전쟁의 실상을 우리에게 잘 전해 주는 실기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달천몽유록」은 윤계선이 1600년 실제 호서를 암행한 거취의 기록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중 평소에 생각했던 장수 책략의 중요성·비열한 장수의 비판·문약한 과거의 반성을 들어 읽는 자로 하여금 반성감을 일으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구성은 소설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몽유부분은 현실비판·욕망의 표출이라는 꿈의 기능이 미약하고, 몽유부분과 제문부분이 중복되어 번거러운 감이 있다. 또한 전거수사로 자신의 문제를 과시했을 뿐, 전란에 대한 기술은 고식적 표현을 벗어나지 못했고, 곳곳에 삽입된 한시도 대화·긴장고조·의미강조 등의 역동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작자가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쟁세대들의 공유질이며, 나름대로 현재적 대안을 마련해 보려는 자각이 엿보인다.

「피생명몽록」은 난후 시체의 방치·전쟁 전과 다름없는 관리들의 부패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전후 민간인의 도덕성의 상실과 사대부계층의 무사안일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그것을 계층적 장벽을 초월한 현실개선으로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한 한계는 있다. 그러나 작품 구성에 따른 내용의 처리는 긴장감이 있고, 삽입시의 활용도 역동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두 작품은 그 작자가 비판적 사대부이고, 전쟁세대들이 실감하고

제 인식하는데 앞장 서서 새시대 문학의 선구가 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시대 권필·유몽인·이안눌 등의 작성된 지식인의 한시도 상하층 체험을 대변하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20)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노모와 처자가 산중에서 굶주려도 적에게 욕보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내 실낱 같은 생명이라도 이어진다면 천행이지 않겠는가? 밤낮으로 하늘에 빌어 본다. 노모 처자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기록(1592. 6. 12.)

②꿈에 달성인을 보았다.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그리워 밤새 울었다. …낙동강이 불어나서 가족 소식을 더욱 듣기 힘드니 죽고만 싶다.(1592. 6. 28.)

③적은 더욱 날뛰고 고향에는 갈수도 없는데 어머니와 자식을 생각하니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듯하다.(1592. 8. 5.)

있었던 과거반성과 현실비판 의식을 꿈의 구조를 빌려서나마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민족문학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현실인식의 환상화를 보여주는 작품이 더러 있는데, 이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조가 明 원군의 내조에 보답하기 위하여 명나라 軍神 關羽의 사당을 짓고, 이를 칭송하는 시를 지으라고 명하여 허균이 지은 「勅建顯靈關王廟碑」이다.

(전략)

前茅奮頑 앞에서 깃발 흔들고 천동치니  
 後勁豐隆 뒤따르는 군사 구름같이 모였다.  
 鎮劍辟創 빛나는 싸움에서 거듭 징벌해  
 逆靖卉桑 저 왜국을 평정했도다.  
 重奠吾東 우리 동방 찾아주셨기에  
 緇蕃少康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으니  
 勲勣敢忘 그 높은 공적 어찌 감히 잊으리

(후략)

(허균, 칙건현령관왕묘비)

이는 전투시 어려운 장면마다 나타나 자연이변을 일으키거나 신군으로 나타나 왜군을 물리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는 관운장의 음우에 대한 신앙이 임금에게까지 미쳐 있고, 그 결과 그를 칭송하는 사당을 지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입장에서 볼 때 死諸葛走生仲達式으로 외국의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켜 정신적 승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도대체 조선과 명나라가 합쳐 싸워도 상대할 수 없는 왜군의 저력을 무엇인가를 따져 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둘째, 미증유의 전란을 겪고 난 뒤에도 고작 읊을 수 있었던 것이 태평의 구가였으며, 그리고 그것도 성은의 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박인로의 「태평사」를 들 수 있다.

〔 (전략)

七載를 年走터가 太平오늘 보완다고  
 投兵 息戈하고 細柳營 도라들체

太平簫 노픈 솔의예 鼓角이 쟁거시니  
 水宮 김은 곳의 魚龍이 다투는듯  
 ... (중략) ...  
 揚弓擧矢하고 凱歌를 아뢰오니  
 爭唱 歡聲이 碧空에 열흐느다  
 (후략)  
 (「태평사」)

② (전략)  
 遺子生靈들아 聖恩인줄 아느슨다  
 聖恩이 기쁜아리 五倫을 밟켜소라  
 教訓 生聚 | 라 절로아니 넓어가라  
 天運循環을 아옹개다 하느님아  
 佑我邦國 헌샤 萬歲無疆 늘리소서  
 (후략)  
 (「태평사」)

앞에서는 7년간 전쟁을 치른 무부답지 않게 말과 활을 빨리 거두고 오로지 육신만 편하게 하려는 사고의 편린을 보이고, 그리고 뒤에서는 전후 과거의 반성과 차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전에, 충효를 말하면서 단순히 과거의 체제로 복귀하는 것만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노계가 얼마나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적 사고에 빠져 있는 인물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정재호도 박인로의 가사를 분석하면서 작품 의식을 현실성 없는 태평 구가·허울좋은 군은 강조·사실과 다른 능력 과시·피상적 전쟁발발 원인 제시 등을 들어 비판하였다.<sup>21)</sup>

#### 4.2. 세계지향의 전쟁문학과 전쟁체험의 추상화

세계문학이란 괴테가 국민문학과 대용시켜 만든 개념인데, 보편적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문학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보편적 인간의 모습이란 시대의 제약이나 한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시대성과 객관적 국민성에 투철하는 데서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즉 참다운 민족문학이 바로 훌륭한 세계문학이

21) 정재호, 전개서, p.175

22) 문원각 편, 한국문학대사전, 1973., p.976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계지향의 전쟁문학이라 함은 반전적 휴머니즘의 경향을 따면서 문학적 고전성을 확보한 작품을 가르키는데, 임란전쟁문학중 경향 상에나마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작품으로, 한시로는 권필의 「切切何切切」과 유몽인의 「海州衛見國人孫三孫金太仁孝成龍來訪」을 들 수 있고, 소설로는 「崔陟傳」과 「南允傳」을 들 수가 있다.

(전략)

折辱同降虜  
욕을 보며 지내는 것이 항복한 포로 같고  
羈孤作贖仔  
외로운 나그네되어 천한 종살이를 한다.  
主家紓眷遺  
주인집에서 극진히 보살펴주어  
妻子足價娛  
차자식은 잘 자내고 있으며.  
飯札聊充服  
거친 곡식 먹고 배를 채우고  
戎羞剩暖驅  
영소가죽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思親心幾憇  
부모가 그리워 마음은 타고.  
懷土漠如珠  
고향 생각에 눈물이 방울진다.  
妾謂他人口  
망령되어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며  
猶甘巨室奴  
큰 집 종노릇을 달게 여기고 있네.

(후략)

(유몽인, 「해주위견국인손삼손금태인효성통래방」)

(전략)

夫婿遠行役  
남편이 멀리 전쟁터에 나가면서  
謂言卽顛反  
곧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三載絕消息  
삼년이나 소식이 끊어졌다오  
一女未離乳  
딸 하나 아직 젖을 떼지 못했는데  
羈妾無筋力  
저는 근력이 없답니다.

…(중략)…

拾穗野田中  
들에서 이삭이나 주으려하니  
歲暮衣裳薄  
날은 저물고 옷은 얕다오  
北風吹郊墟  
북풍이 벌판에 불어오고  
寒日暮將夕  
겨울해는 쑥쑥히 저물려하네요.  
獨歸茅簷底  
홀로 띠집으로 돌아가니  
哀怨豈終極  
슬픔과 원한 어찌 끝이 있으리오

(후략)

(권필, 「절절하절절」)

위에 제시한 유몽인과 권필의 한시는 몇 사람의 기구한 운명을 통해 민

족의 처지와 시련을 환기시키고, 왜 이런 가혹한 전쟁에 인간은 시달려야 하는가 하는 전쟁 그 자체에 대한 회의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척전」의 주인공들은 적의 내침을 받고도 또는 전투원이었던 사람들답지 않게 적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이 보이지 않는다. 옥영은 별저항없이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간 뒤 안남을 내왕하는 상선을 타게 되고, 안남에서 최척을 해후하자 왜인은 서슴없이 옥영을 방면해 주는 것에 이들은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

실제로 전쟁도발자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장병과 백성은 전쟁 대웅면에서 상반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작품 역시 강한 복수심·저항감·적개심의 대립상태에 있는 적국인끼리 얼마든지 친화적이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또한 최척과 옥영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집단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며, 단지 내 가족의 안위에만 급급하는 면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민족의식 고취형의 전쟁문학 유형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전쟁으로 이산된 일가족이 기구한 역경을 거쳐서 재회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존재의 무상함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조선·일본·중국의 세 무대가 등장하듯이 어느 한 지역이 중심이 되는 단순구성을 취하지도 않았으며, 최척·옥영·봉석 세 주인공이 각기 독립적으로 이야기를 끌고나가는 긴밀한 복합구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작품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무상함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근대적 전쟁문학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을 반대하는 관점이 아니라 다분히 전쟁을 운명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전시 부부가 취해야 할 행동윤리를 은밀히 강조하고 있다고 볼 때, 전쟁문학의 보편성은 확보되지 못했다고 하겠다.

「남윤전」에서 남윤은 처음에 포로가 되었을 때 왜국에 대한 철저한 적개심에 차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생의 인연을 깨닫고 그리고 옥황상제의 교시를 통하여 초월계의 논리인 세계동포애적 사랑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원천적 탐구와 애정은 귀국후 현실세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작가는 이 작품에서 유교윤리(이씨부인의 효도·처첩제도·옥경선의 절의)와 불교사상(전세 인정) 그리고 도선사상

(옥황상제 등장) 등 민간신앙을 동원하여 전인류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원초적 인간애에 대한 사고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포로가 되어 기구한 역경을 거쳐 귀국했던 이야기와 일본에 정착 상당한 사회적 신분을 확보하여 통신사의 귀국종용에도 선뜻 일본을 떠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주제표출을 위한 인물과 구성의 긴밀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얼마간 작품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일본·중국이란 광대한 공간적 배경과 다양한 인물을 등장 시켜 놓고도 단순구성에 의존하고 있고, 왜군의 남해상륙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바로 도성을 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그날을 신혼초야로 설정한 것 등의 작위성은 이 작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 두 작품은 경향에서나마 세계문학적 보편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조선인이 겪었던 독특한 전쟁체험을 그 전쟁의 성격과 인본중심사상과 결합시킴에 있어서 미숙함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세계문학성을 띠는 전쟁문학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 전쟁체험의 추상화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더러 있는데, 그 예로 고옹척의 가사 「도산가」·노제의 가사 「선상단」·경섬의 통신사일기 「해사록」 등을 들 수가 있다.

첫째, 고옹척은 그의 「도산가」에서 전란시 천험의 피난처에 은거하여 있으면서, 별유천지비인간의 세계를 구가하는 현세 초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전략)

腥塵一石 忽起乎니 黎庶今朝 離散이라  
 扶老携幼 어이하고 深山窮谷 촌촌가니  
 桃花流水 싸오난데 罷月松風 님자없다  
 三間草屋 니룬후에 數頃石田 손조미야  
 蔬食菜羹 씨를니워 上奉下率 連命하니  
 紛紛世事 너아닌가 別有乾坤 너기로다  
 □□□□ □□□□ 採山釣水 任意하니  
 義皇天地 언제린고 太古淳風 다시본듯  
 唐虞日月 이나닌가 懾壤歌聲 들리난듯

## (후략)

(고옹척, 「도산가」)

우리는 여기서 전란이 일어나자 부휴노소하고 천험의 피난지로 들어가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하는 작자를 만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란에 대한 일말의 걱정도 없는 자가 어떻게 한때나마 현감과 군수를 역임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피란생활의 단면을 가사로 남겼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 하겠다.

둘째, 노계가 統舟師로 뽑히어 부산 임지에 도착했을 때, 戰船期는 지나 가고 唱船期가 빨리 정착될 것을 기원한 「선상탄」을 들 수 있다.

(전략)

昔日舟中에는 杯盤이 狼藉터니/今日舟中에는 大儉長槍뿐이로다  
戰船타던 우리몸도 漁舟에 唱晚호고/秋月春風에 놓이 배고 누워이서

…(중략)…

飛船에 둘려들어 先鋒을 거치면/九十月風霜에 낙엽가치 헤치리라  
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탁 罷減호 라/吾王聖德이 欲並生호시니라

(후략)

(박인로, 「선상탄」)

앞에서는 주중에 대검장창이 있음이 불만이고, 전선탄은 시절이 빨리 지나가고 어주에서 창만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을 바라고 있음을 볼 때, 수군의 말단 지휘관으로서 유비무환의 정신은 조금도 찾아 볼 곳이 없다. 임란이 지난지 겨우 6년이 지났을 뿐이었는데, 노계의 이러한 생각이 당시 대부분 사대부들의 통념이라고 볼 수 있다. 뒷 부분에서 보이는 적개감·호전의 기상은 한낱 문자적 허세일 뿐, 그의 기본 입장은 화평추구임을 말해 준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애호한 선인들의 평화사상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를 얻으려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병법의 기초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종전후 10년도 채 못되어 공식사행을 다녀온 내용을 기록한 경섬의 「해사록」을 들 수 있다. 아직도 전후 수복이 덜 되고 복수심에 충만해 있는 민의와는 달리 사행길에 오른 통신사 일행은 국내에서나 일본에서나 할 것 없이 연락에만 빠져 있다. 그리고 이들은 왜인들의 물량공세와 환심책에 호호작작하다 돌아왔다. 얼마나 책임감이 없는 사행이었나하는 점은 빨리 귀국하려는 통신사 일행에게 대마도주 경직이 “행차가 빨리 떠나면

쇄환인을 많이 얻지 못할 것이니, 대엿새 머물러서 우리로 하여금 손발을 쓰게 해달라."는 청을 듣고 있음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에게는 임란을 단순한 과거로 생각할 뿐 아무런 반성감과 적개심 그리고 대비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 후대인으로 아쉬움을 초월하여 분노의 감을 갖게 한다.

## 5. 임란전쟁문학의 문학사적 의의

임병양란은 대내적으로 보면 조선조를 전후기로 양분하는 분수령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유교윤리를 바탕으로 출발한 봉건국가는 민란(宋儒眞의 난, 李夢鶴의 난, 七庶之獄, 李适의 난)·과거제도의 문란·신분체제의 동요(斬首及第制度, 空名帖)·지배층의 무기력 등으로 말미암아 그 존립기반을 상실하여, 인간은 신분상하를 떠나 각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하층민 자각이 이루어지고 실사구시 학문이 대두되어, 결국 봉건체제의 붕괴를 가져오는 시발점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면 7년이란 미증유의 전란을 겪고서도, 조선은 국제사회 속에서 독립국으로 생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유교질서의 복원을 통해 체재안정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자주적 근대국가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다.<sup>23)</sup> 그 결과 중국 대륙에서는 명에서 청으로, 일본은 풍신수길의 통치체제에서 德川幕府로 정권이 바뀌는 소용돌이와 함께 근대 국가로의 변모가 가속도적으로 이루어졌음에 반해, 조선에서는 그 후 300 여년 더 조선왕조가 고식적으로 유지되기는 하였지만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여 개화기에 이르러 결국 주권을 다시 일제에게 넘겨주는 국치를 맞게 되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임란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1950년 동족간의 피비린내

23) 의를 바탕으로 한 충의정신은 왜란을 맞아 더욱 강조·강화되었다. 이로써 왕조교체가 예방되었다. 광해군 때 새로 편찬한 「삼강행실도」는 종전의 중국 인물중심의 편찬태도를 지양하고, 임란때의 충신·효자·열녀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왕조에 충성하는 신하를 칭양함으로써 국민에게 충의심을 고취하고 있다.(황태강, 전재서, p.220)

나는 이념전쟁을 치루었으면서 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전쟁문학다운 작품 하나를 준비하지 못하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재호는 미중유의 전란을(임진왜란)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7년이란 긴 기간을 겪었으면서도 그것을 (국문시가) 작품으로 형성한 것은 그렇게 많지 못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국문시가에 대한 관심부족, 작품인멸, 작품화에 대한 관심부족 등을 들었다.<sup>24)</sup> 그러나 필자는,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위기만 넘기면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리고 기억하기 싫어하는 건 망중 때문에 그리고 철저한 반성 및 과거 극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쉽다. 즉 한국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이념에 대한 논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으며,<sup>25)</sup> 임란전쟁 후 지배층과 유교이념에 대한 철저한 자아비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과거체제로의 복귀에만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렇듯 한국전쟁후 충분한 이념적 논의와 임란후 지배층과 유교이념에 대한 철저한 자아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쟁문학다운 전쟁문학이 탄생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논의한 점을 바탕으로 임란전쟁문학이 가지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의식의 발아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동번으로 자처했던 선조들의 존화적 세계관은 임란을 계기로 조선을 세계의 중심으로, 주변국가를 올타리로 보려는 주체적 세계관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체의식은 전쟁의 경과중 군주의 나라 명과 섬오랑캐의 나라 일본에 대한 종래의 인식이 깨어지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그것은 명은 불변하는 동북아의 문화적 종주국·군사적 강국은 아니며, 명군을 곳곳에서 격파했던 왜군의 역량에서 증명되었듯이 일본이 문화적 속국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바로 군사적 약소국이 아니라는 각성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명나라에 대한 불신감의 팽배는 특히 원병여부 결정·원병의 행패·독단

24) 정재호, 전계서, p.147

25) 전투는 끝났으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전후적 시대상황이 형성되기는 했으나 새로 운 시대의식과 창조적 열정으로서 전후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잠시도 안정된 적이 없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한국의 작가에게 어찌하여 전후 20년이 지나도록 읽을 만한 전쟁문학 하나 쓰지 못했는가라고 불만할 권리가 없다.(홍기삼, 전쟁 그리고 문화의 수면, 월간문학 56, 1973., p.207)

적 강화회담·소극적 전투에서, 그리고 일본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통신사의 기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시피, 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문학적 형상화는 비허구서사체·일화·설화 등의 양식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둘째, 민족문학의 개화를 들 수 있다. 왜 임란을 예측하고도 전비를 갖추지 못했는가? 전란중 평민들의 민란과 모반은 바람직한 것인가? 왜 충신과 충성심에 불타는 무장과 의병장이 유배·옥사·무고를 당할 정도로 정치는 부패했었는가? 등은 과거비판적 내용이다. 무장·평민·기녀들의 전락극복 노력은 교훈적 목적하에서 충의심을 찬양한 것이며, 기민의 참상·선정능의 과굴은 적개심을 나타낸 것이고, 도술과 관음장 음조·정왜 등은 미래지향적 의도에서 동원된 소망적 내용이다. 이들을 어느 한 계층의 의지로 파악함은 독단이고 이는 마땅히 난후 민족의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즉 임란후 시대를 지배했던 것은 민중의식이 아니라 민족의식이며, 이를 반영한 임란전쟁문학의 일부는 서민의식과 사대부의식이 결합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민족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허구서사체의 왕성한 창작으로 문학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이전의 작품은 시가 주류였지만, 배경설화와 함께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와 문학의 미분화시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고려후기 시화류·가전 등의 발생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분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와 문학의 분열현상이 진행되던 시기에 임란의 충격을 교훈적 입장에서 기술한 비허구서사체라는 사실문학이 본격적으로 창작되었으며, 이후 문학의 종주권도 시에서 소설로 이양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허구서사체의 남상으로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을 들 수 있지만, 장르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은 임란후 교훈과 반성을 후세에 전하려는 목적하에 사실에 입각해서 쓰여진 일기·기행문·실기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일화의 창작으로 설화영역이 확대되었다. 임란과 관련된 설화로는 전설과 일화를 들 수 있다. 전설의 전승력은 그것이 환상적이면서 청자에게 교훈과 쾌감을 준다는 데 있다. 임란이란 미증유의 전란을 겪으면서, 선조들은 평소 상상으로나 그려볼 수 있었던 비정상적인 것을 직접 체험

하게 되었다. 그것은 현실적이면서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종래의 전설과 구분되므로 필자는 이러한 일회적 경험담을 일화라고 지칭했다. 이 일화는 대부분 주인공이 명백하고, 대체로 역사를·비허구서사체 그리고 조선후기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삼국유사」에 일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임란 이후에 서사장르 내에서 일화라는 양식이 독립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사실주의 소설의 전초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경향면에서나마 근대적 전쟁문학의 쪽을 보여주었다. 방어전쟁이란 성격과 왜군을 통쾌하게 격파하지 못하고 왜군의 자의적 철수로서 승리를 확보했던 아쉬움이 문학에서 유교윤리적 대옹과 환상적 설욕으로 나타났지만, 의아스럽게도 전쟁의 참화에 대한 적개심보다는 참다운 인간성을 발견하려는 노력과 적국인도 나의 동포라는 낭만적 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 창작되기도 했다. 전자가 「최척전」이며, 후자가 「남운전」이다. 이들은 침략전이든 방어전이든 인간이란 존재가 느끼는 전쟁에 대한 감정은 동일하며, 여하한 전쟁도 기피되어야 할 것임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반전문학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세계적 보편성을 띤 전쟁문학이란 단순히 반전적 입장에서 인간성을 고취시킨다고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인본적 입장과 일정한 전쟁이 한 민족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족 고유의 체험을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한계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 6. 결 론

이제까지의 연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란전쟁문학에 대한 연구는 실기의 주변장르와의 영향관계, 조선조문학사 내에서 전환기적 성격, 실기문학의 문학성, 기충민의 원망수용, 시가에 반영된 주제양상 등을 규명하여 왔는데, 필자는 전시·전후에 임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전쟁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고가 작품 속에 어떻게 용해되어 나타나는가를 살펴, 전쟁문학사적 의의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임란전쟁문학이란 용어의 필요개념인 “임란”·“전쟁”·“문학”的 의미망을 도출하여 임란전쟁문학이란 충분개념을 도출해 본 다음, 이에 포함되는 임란전쟁문학 작품을 개관해 보고, 둘째 평민과 사대부들의 임란옹전의 실상은 어떠하며,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의식을 대표해 주는 작품과 비교분석해 보고, 셋째 일찍이 없었던 전국토를 시산혈하로 만든 범민족적 전쟁체험이 제대로 민족문학으로 그리고 세계문학으로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란전쟁문학이 크게는 전쟁문학사 내에서 크게는 한국문학사 내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도출해 보았다.

임란전쟁문학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국 세두역전으로서의 전쟁의 개념과 비허구서사체를 포함하는 문학의 개념이 융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을 고려하여 임란전쟁문학이란 “임진왜란을 체험한 세대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남긴 자료를 그대로 편집한 후대인에 의하여, 임진왜란의 현장과 상황이 사실적이고 허구적으로 묘사되고 전장 속에서 인간의 체험과 의식을 소재로 하여, 전쟁간 전투의지와 충성심을 양양하거나 전후 적개감과 반성감의 고취로 민족의 의지를 단결시켰거나 또는 전쟁 속에서 인간의 본질과 전쟁 자체의 비극성을 노출시켜 반전적 휴머니즘을 고취시킨 허구적·비허구적 문학이다.”라고 개념규정을 해 보았다.

임란전쟁문학 작품을 편의상 시가·산문으로 나누고, 산문은 다시 크게 허구서사체와 비허구서사체로 나누었으며, 시가에는 민요·가사·시조·한시 작품을, 허구서사체에는 설화·몽유록·소설 작품을, 비허구서사체에는 전·종군실기·전후실기·피란기록·피로일기·사행기록 등을 포함시켜 보았는데, 한마디로 한국전쟁문학사를 짐필할 수 있을 정도로 문학성이 내재된 작품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임란의 현장과 선인들의 옹전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필자는 임란을 체험한 개개인이 쓴 실기를 통하여 평민층과 사대부층이 어떻게 임란을 극복하려 했는가를 통시적으로 재구해 보고, 이를 양계층의 의식을 대표하는 작품들과 비교해 보았다.

평민의 의식은 평민의 입을 통해 구비전승된 민요와 비판적 사대부의

시각을 통하여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전란을 당하여 나라의 안위를 걱정 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얹매여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아 필자는 이러한 평민의식을 한마디로 개체지향적 의식이라고 칭해 보았다. 그리고 사대부들은 일부 충절적 면모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대부가 역경 속에서도 평소 사군이충의 유교윤리를 실천해 주었기 때문에, 체제내 많은 모순이 있었으면서도 500여년이란 긴 세월동안 조선조는 유지될 수 있었으며, 또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층은 민중이며 세계의 중심은 우리라는 주체의식을 가진 일부 비판적 사대부의 등장이 있었기에 18세기 이후 조선조는 다소나마 봉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대부의 표창해야 할 의식을 필자는 한마디로 충절의식이라고 칭하였다.

임진왜란에 대한 전시·전후 당대인의 의식은 지배층 비판·적개심 고취·충의실천·자기반성·전쟁에 대한 허무감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전란 극복의지가 주로 내재된 참여문학인 민족적 전쟁문학과 전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전문학인 세계적 전쟁문학으로 나누어, 그 문학적 형상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족지향의 전쟁문학 작품으로 민족설화·허균의 한시 「老客婦怨」·이순신의 한시 「閑山島夜吟」, 종군실기 「정만록」 그리고 비판적 사대부에 의해 창작된 「達川夢遊錄」·「皮生冥夢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현실인식의 환상화를 보여주는 작품이 더러 있는데, 선조가 明 원군의 내조에 보답하기 위하여 명나라 軍神 關羽의 사당을 짓고, 이를 칭송하는 시를 지으라고 명하여 허균이 지은 「勅建顯靈關王廟碑」와 미중유의 전란을 겪고 난 뒤 태평을 구가하고 그리고 그것도 성은의 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박인로의 「태평사」를 들 수 있었다.

세계지향의 전쟁문학 작품으로, 한시로는 권필의 「切切何切切」과 유몽인의 「海州衛見國人孫三孫金太仁孝成龍來訪」을, 소설로는 「崔陟傳」과 「南允傳」을 들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전쟁체험의 추상화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더러 있는데, 그 예로 고옹척의 가사 「도산가」·노계의 가사 「선상단」·경섬의 통신사일기 「해사록」 등을 들 수 있었다.

임란전쟁문학에는 주체의식의 발아·민족문학의 개화·비허구서사체의

왕성한 창작·일화 양식의 확대·근대적 전쟁문학의 창작 등의 면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일부 작품에 대한 용전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좀더 많은 작품에 대한 미시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보다 많은 동학들에 의해 임란 전·후기 전쟁문학작품에 대한 통시적 연구가 이루어져 한국전쟁문학사의 탄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강홍수, 임진왜란과 민족설화, 문창당, 1951.
- 권영철, 모하당시가연구, 가사문학연구, 정음사, 1979.
- 김동욱, 임란전후가사연구, 진단학보 25-27, 1964.
- 김명식, 간양록연구,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2.
- 김일렬, 주생전소고, 어문논총 11, 경대 국문과, 1977.
- 김태준, 임진왜란과 국외체험의 실기문학(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 민영대: 최척전과 조위한, 아세아문화사, 1993.
- 설성경, 임진왜란체험의 설화화양상(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 소재영, 임병양란의 충격과 문학적 대응(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 \_\_\_\_\_, 임병양란과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
- \_\_\_\_\_, 임란피로들의 해외체험, 국문학논고, 승실대출판부, 1989.
- \_\_\_\_\_. 임진왜란과 소설문학(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 송철호, 임병양란 인물전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 오희복 역, 임진의병장작품집, 조선고전문학선집 59, 한국문화사, 1995.
- 이동근, 임란전쟁문학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3.
- 이명선, 임진록, 임진왜란에 관한 전설, 국제문화사, 1948.

李夢賢,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고소설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6.

이채연, 임진왜란포로실기문학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3.

임철호, 임란설화고1, 국어국문학 89, 1983.

임철호,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 집문당, 1989.

\_\_\_\_\_, 이여송설화연구, 국어국문학 90, 1983.

\_\_\_\_\_, 사명당설화연구, 한국언어문학 23, 1984.

張庚男, 임란실기의 문학적 특성고찰, 숭실어문 11, 숭실대 숭실어문연구회, 1994.

정재호, 임진왜란과 국문시가(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조동일, 민족수난에 대응한 문학, 한국문화통사3, 지식산업사, 1995.

\_\_\_\_\_, 허균세대의 임진왜란 체험과 한시의 변모(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조석래, 임란소재설화고, 어문학 44·45 합병호, 1984.

차용주, 달천몽유록에 반영된 임란의 전후의식에 대한 비교고찰, 다곡이수봉선생 화갑기념 고소설논총, 1988

최신호, 임·병·양란과 척외시가(김열규 외, 한국고전과 민족사상, 신구문고 9, 1974)

황폐강, 임진왜란과 실기문학(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